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6. 25.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참고) 본격 폭염 시즌, “무더위엔 2시간 일하면 20분 쉬자”...건설·물류·유통업계 안전일터 만들기로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목) 10:00 김중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폭염 영향예보: 관심(31°C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주의(33°C 이상 2일 지속) → 경고(35°C 이상 2일 이상 지속) → 위험(38°C 이상 1일 이상 지속)

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①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②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해달라 했다.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③ 아울러, 6월 12일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6월 13일과 14일에는 제주·전남·경남지역에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마철 집중 호우로 침수·붕괴·감전 등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48개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921

정부·국회

(참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안전 현안 긴급점검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월) 김민석 차관 주재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고공농성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내버스·조선·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으로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 (노사분규 건수) '24.5월 30건 → '25.5월 28건(2건, 6.7% 감소)

** 용광 등 19개사(한화오션 협력업체), 한국유타칼하이테크, 세종호텔

한편, 산업안전의 경우 과거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6.2.)와 SPC(5.19.)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본부·지방청이 한 팀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곧 여름철 폭염·집중호우가 시작되는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노동현장에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가 최소한 「4대 기초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산업 현장에 「재해예방 4대 금지수칙」이 뿌리 내려 일터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직접 예방 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6.23.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엔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중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937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962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5/23, 울산 남구] 흡수제 교체 작업 중 질식
 [5/23, 경남 밀양시] 밀려 내려오는 덤프트럭에 부딪힘
 [5/23, 전남 영암군] 운행하는 지게차와 부딪힘
 [5/23, 경북 경주시] 드릴기로 가공 작업 중 회전부에 끼임
 [5/25, 경기 안양시] 승강기 문을 열고 진입 중 떨어짐
 [5/26, 경남 거제시] 계단 측면으로 떨어짐
 [5/27, 경기 파주시] 자재반입 중 떨어짐
 [5/28, 경기 화성시] 맨홀에서 질식되어 떨어짐
 [5/28, 경기 김포시]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5/28, 경북 경산시] 사다리에서 작업 중 떨어짐
 [5/29, 부산 부산진구] 비계 해체 작업 중 단부로 떨어짐
 [6/2, 충남 태안군] 선반 가공 작업 중 회전부에 끼임
 [6/3, 경기 이천시] 차량의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떨어짐
 [6/5, 경기 용인시] 향타기 넘어짐
 [6/9, 전북 군산시] 미끄러져 내려오는 차량에 부딪힘
 [6/10, 대구 달서구] 크레인 탑승설비에서 작업 중 떨어짐
 [6/11, 충북 진천군] 창고 지붕 보수 작업 중 떨어짐
 [6/12, 경기 화성시]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끼임
 [6/12,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접안시설과 화물차 사이에 끼임
 [6/13, 경북 봉화군] 슬러지 상차 작업 중 무너지는 슬러지에 깔림
 [6/13, 서울 강남구] 하수관 청소 작업 중 무너지는 토사에 깔림
 [6/16, 경기 김포시] 페드럼 절단 작업 중 드럼통 폭발
 [6/16, 경북 영주시] 압축기 주변 청소 작업 중 압축기에 끼임
 [6/18, 경남 창원시] 회전하는 가공물에 맞음
 [6/18, 인천 강화군] 수처리설비 작업 중 황화수소에 중독됨
 [6/19, 충남 청양군] 지붕 보수 작업 중 떨어짐
 [6/19, 경북 경주시] 임의로 작동된 파쇄기에 끼임
 [6/20, 충남 당진시] 천장크레인 로프가 파단되어 떨어진 인양물에 맞음

미래 안전을 책임질 신기술을 소개합니다

상식을 개치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혁신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0개 팀을 시상했다.

2018년에 첫선을 보인 안전신기술 공모전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 공단은 매년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기술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왔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54개 팀이 참가했으며 ▲기술 혁신성 ▲현장 적용성 ▲개선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10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기내 안전 관리용 보조배터리 열폭주 대응 파우치를 개발한 (주)지포인트(대표자 문중혁), 최우수상에는 (주)파이네코(콘크리트용 스마트 안전양생 시스템), 한국경량레일(주)(다목적 활주장치 활용 고소작업 안전장치) 총 2개 팀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팀에게는 상금(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과 함께 국제안전보건 전시회 공동부스참가, 수요공급 매칭 프로그램, 기술보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혁신할 스타트업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라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를 위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591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예비산업인력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 체결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과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6월 12일(목) 오전 11시 예비산업인력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예비산업인력의 산업현장 진입 전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대학 학과과정과 산업안전체험교육을 연계하고, 신입생 및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러닝, 집체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폭안전 관련 협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예비산업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예비산업인력이 산업현장에 안전하게 첫 발을 디딜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587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보건공단

‘K-산업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톡톡 튀는 신규 아이디어 발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6월 23일(월) ‘K-산업안전보건 추진 TF’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실시한 ‘안전문화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5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

‘K-산업안전보건 추진 TF’는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의 세계적 선도국가 위상 구축을 위해 가치창출, 사업개선, 문화확산 총 3개팀으로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문화확산팀에서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안전문화 활성화, 안전의식 함양 등을 위해 총 105개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참신성, 사업 연계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5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발표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였다.

순위별 선정과제는 (대상) ▲재정지원사업 사후관리 자율확인 시스템(AI기반) 구축, (최우수상) ▲「디지털 안전보건 교재솔루션」 구축 및 개인화 서비스 구현, (우수상) ▲대학-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안전상생 서포터즈’ 지원사업, (장려상) ▲데이터 기반 ‘KOSHA 안전톡톡’ 구축, ▲‘한눈에 안전메시지’ 확산 캠페인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과제는 향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K-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앞장설 참신한 과제들이 발굴되었다” 라면서 “이 아이디어들이 안전보건 분야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안전문화 사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592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산업재해 예방에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한다

안전보건공단, 한국노총과 업무협약 ...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실천력 강화

산재예방 전문기관과 노동자 권익 대표 단체가 손을 맞잡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은 6월 25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본부에서 『산재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재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2025. 6. 25.(수) 14:00 ~

- 장소 : 한국노총 본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 참석 : (공단) 김현중 이사장, 안전문화홍보실장 등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부위원장 등

이날 협약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구체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 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 교육 활성화 △양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양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하며 안전보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연맹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 등 산업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연계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재해예방 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앞으로 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 사업 참여를 위해 다양한 노·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593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건설현장 장마철 안전보건길잡이 안내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조치 당부

주로 옥외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특성 상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폭염 등 자연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건설현장은 계절에 관계없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나,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는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당부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584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이 만든 위험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트랜스남성 c가 구직 사이트를 스크롤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병역 사항 기재' 칸입니다. 그 한 줄이 '지원 가능'과 '포기'를 가릅니다. c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은 벌어야 하는데, 마음 놓을 만한 회사를 기다릴 순 없죠." 새 직장을 준비하는 지금도 그는 '군복무를 물으면 커밍아웃할까,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할까' 하는 리허설을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합니다.

누군가는 단 한 번도 의식해 본 적 없는 '병역' 체크박스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긴장 버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존재를 지키기 위해 겹겹의 거짓말을 두르고 면접장에 들어가야 하는 이 현실은, 차별이 구조화된 일터가 성소수자뿐 아니라 모든 약자를 어떻게 소진시키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전체 인구의 약 4.5~7%로 추정되지만, 그 존재는 일터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차별을 경험해도 드러내지 않거나, '아웃팅'(본인의 동의 없이 정체성이 알려지는 일)을 우려해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성소수자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정신건강 실태를 구조화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소수자 노동자 7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고 총 19명을 만나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에서 드러난 노동 환경, 정신건강의 위기

연구에 참여한 성소수자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더 높은 학력, 더 많은 전문직 종사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 ▷ 상용근로자 83%, 임시·기간제근로자 13.1%, 일용근로자 3.8%
- ▷ 관리자 및 전문직 (19.7%), 사무직(54.2%), 서비스직(20%), 생산직 (6.1%)
- ▷ 학력은 대졸 이상이 70.6%, 월 소득은 200~400만원 구간이 68.4%
- ▷ 우울 증상 경험률: 24.6% (일반 노동자 대비 4.3배)
- ▷ 자살 생각: 17.9%, 자살 시도: 3.1%

일반인구집단 노동자에 비해 언어 폭력, 모욕적 행위 등 폭력에 보다 빈번히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에는 무려 23배, 지난 1년 간의 성희롱은 28배, 왕따/괴롭힘은 72배 높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가 된 근로환경조사가 1:1 면접조사로 진행되어 해당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감안 하더라도 성소수자 노동자는 직장내 폭력에 높은 비율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하 생략-

[예술과 직업건강 탐구] 전함 테메레르
(The Fighting Temeraire)

1. 작품 소개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J.M.W. Turner, 1775~1851)는 영국의 풍경화 거장이자 빛의 마술사로 불립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전함 테메레르(The Fighting Temeraire)>는 19세기 영국 해군의 전설적 군함 '테메레르(HMS Temeraire)'가 퇴역하며 템스강을 따라 마지막 정박지로 예인되어 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배는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후 수십 년간 왕립 해군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산업화의 새로운 상징인 증기선에 끌려 퇴역하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범선은 웅장하고 순백색으로 빛나는 반면, 예인하는 증기선은 검고 연기를 뿜으며 산업사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는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한 화면에 담아낸 것입니다.

이 작품은 1851년 터너 유증의 일부로 국가에 기증한 것으로, 2005년 BBC 설문조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국 그림'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대 이후 20파운드 지폐에도 화가의 자화상과 함께 인쇄되었습니다.

2. 시대 변화의 두 얼굴: 변화 vs 상실

작품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검은 예인선은 산업혁명 시대를 상징하는 기계화의 아이콘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순백의 전함 테메레르는, 영광의 시절을 상징하는 손기술 기반의 구시대 노동을 나타냅니다. 해가 지는 방향은 실제 테메레르가 향한 서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너는 일부러 서양을 배경으로 배치했습니다. 즉, 이 그림은 단순한 기록화가 아니라 알레고리(상징적 묘사)인 것입니다. 해가 지는 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터너는 이 그림에서 단순히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향수만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미술사학자 맷 윌슨(Matt Wilson)에 따르면, 오히려 터너는 현대성을 찬양하고 인간 창의성의 모든 발현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비, 증기, 속도(Rain, Steam and Speed)>를 보면, 그는 신기술의 박진감과 감각적 충격을 회화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탄 인상을 바탕으로, 비와 증기, 속도의 조합을 격렬한 붓질로 재현하며 새로운 시각 경험을 창출했습니다. 즉, 그는 기술의 발전을 일방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 속도, 대기 등 이전 회화에서는 담아내지 못했던 주제를 감각적으로 실험하면서 시대의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함 테메레르>에서는 유독 아련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유일 것입니다. 전함의 퇴역은 한 시절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이기도 하며, 이는 곧 인간 노동과 기술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이하 생략-